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 분야 글로벌 통용 공인성적서 생긴다

국표원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KOLAS 인정한 시험기관서 제공
105개국서 중복시험 없이 가능
선정된 7개, 수출·첨단 분야 다수



/유도이미지

정부가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이나 수출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들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공인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 제공하고, 발급된 성적서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5개국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된다.

국표원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

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유망시험 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 과제가 많다.

수출산업 분야로는 수출산업화기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 성능평가’, ‘마이크로 LED 또는 투명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 성능 평가’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없던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2일부터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내달 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4월 농축산물 물가 1.8% ↓ 생산 회복에 가격안정 기대

**농식품부 “5월 이후 계절 변화에
공급 여건 개선… 안정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1.8% 하락하였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추세이나 전년비 낮은 수준이다.

닭고기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으나 5월 말부터 종계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작물별 수급동향을 보면 겨울 배추 생산량은 전·평년 대비 각각 12.8%, 4.4%로 늘어나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5~6월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전·평년비 각각 0.3%, 13.7% 증가해 수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의 경우 한파 피해로 겨울무 생산량이 전년비 22%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 이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비축물량 5만 80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는 한편,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비축물량 일부를 직공급하고 있다. 또 단무지, 쌈무 등 가공업체의 원물 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수입무 전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양파의 경우 조생양파가 본격 출하되어 도매가격은 4월 중순 kg당 1376원에서 4월 하순 828원으로 하락세이다. 감자는 4월 중순 이후 시설 봄감자가 본격 수확되어 도매가격은 전순 대비 16.1% 하락하였다. 소비자 가격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순부터는 전체 감자 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의 경우 4월 한우 공급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도매가격(거세우)은 16.2%, 소비자 가격(1등급 등심)은 16.9%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어미돼지 수가 전년비 1.6% 감소했는데도 생산성이 증가하여 1~4월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대 물량이었다던 전년동기 보다 0.3% 증가한 632만 마리로 전망된다. 4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0%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닭고기는 병아리 공급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14.8% 높은 4,079원/kg 수준이다. 5월 말부터 기온 상승으로 종계 생산성이 회복되어 병아리 공급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5월 이후에도 기온 상승, 봄철 생산물 출하,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7% 각각 상승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괴산·부여 등 16곳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최종 확정

중기부·행안부, 13개 우수과제 선정
중앙부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 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13개 우수과제가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부처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집중 지원하는 기워해 올해 처음 추진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8개 지자체(협업 지자체 포함)가 23개 과제를 신청했다.

이들 과제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행

안부는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충북 괴산군은 ‘한지문화산업경제 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한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확장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에게 상품 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및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 중기부는 영농법인에게 농산물 가공 기술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하여 직접 재배한 작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한다.

전남 함평군은 ‘해보면 농공단지 전면 개편’을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기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받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원과 중기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원씩 총 800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정한 과제들이 당초 계획한 전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할 것”이라며 “5월말에는 선정된 16개 지자체와 지역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中企 인력양성대학 17곳 선정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
올 9월 교육과정 개설·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AI(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등 분야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2개, 기술사관 육성사업 주관대학 5개 등 총 17개 대학이 미

래 유망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은 경남대, 경희대, 공주대, 광운대, 남부대, 단국대, 대전대, 동아대, 부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경국립대다. 기술사관 육성사업 주관대학은 경남정보대, 대구보건대, 두원공과대, 영남이공대, 울산과학기술대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17개 중 5개 대학이 선정돼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대학 포함 총 9개(계약학과 5개·기술사관

4개)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을 통해선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각 주관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인프라 구축, 학생 모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9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이 2일 오후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 심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전경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3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위원회는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

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업장 ▲시설물 ▲근로자 ▲중소기업의 4대 분야에 대한 10대 추진과제 및 20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전경영 고도화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승호 기자